

8 동성애와 신학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은 교회가 이제까지 성(性)이라는 매우 좁은 영역에서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조장해 왔으나 전쟁의 허용, 식민주의와 경제적 착취의 인정 등의 다른 영역에서는 터무니없이 너그러웠다고 지적한다. 미래의 교회는 죄의 사회적 얼굴을 더욱 주목해야만 할 것이라는 아픈 지적이다. 죄의 개인적·심리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역사적·구조적·생태학적 차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1. 동성애 문제는 문화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난제 중 하나이다

사례1: 게이 교회에 폭탄을?

“Kerry Noble reported that when **he was sent to destroy a gay church and its parishioners** in Kansas City, the moments in which he sat in the pew before he was to trigger his bomb and depart was an occasion for him to seriously reflect on what his intended act would achieve: “All I could envision was torn bodies, limbs ripped from torsos,” Noble recalled. Sobered and shaken, he left the sanctuary with the briefcase containing the bomb still in his hand.”¹⁾

사례 2: 김 모 목사의 2005년 카트리나 관련 발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뉴올리언스에서 몰아닥친 카트리나 허리케인도 수 천 명이 죽고 백조 원 이상 재산 피해를 가져온 것도 바로 동성연애 호모섹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 뉴올리언스는 해마다 동성연애 축제로 모이는 곳인데 작년에 33번 째 동성애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그리고 뉴올리언스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바로 뉴올리언스예요 그게. 작년에 얼마나 모였냐. 12만 5천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금년 34번째에는 더 큰 규모로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그 도시를 싹 쓸어버렸어요. 뒤엎어 버렸어요. ...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과 영국의 이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남자는 '게이'(gay)라고 하고, 여자는 '레즈비언'(lesbian)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목사 안수 받도록 허락한 교단이 술하게 많아. 이 가증한 존재들이 목사 노릇을 해. 남자 여자들이, 이거 참... 이건 하나의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해야 돼요. 마귀를 내쫓아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2. 고대의 이원론적 차별주의

우리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공포심(homophobia)은 어쩌면 인류를 ‘열등한 존재’와 ‘보다 나은 존재’로 구분하던 오래된 잘못된 습관 때문인지도 모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어떤 때는 매우 적극적으로, 다른 때는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재론적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남성은 합리적인 문명의 힘으로서 “이성”(reason)을 대변하는 반면 여성은 감정적인 존재로서 “자연”(nature)에 가깝다고 보았던 선입견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성차별주의는 고대의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의 이원론적 가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남성-여성 차별주의가 이제 오늘

1) Mark Juergensmeyer, *Terror in the Mind of God: The Global Rise of Religious Viol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238.

날 동성에 공포증으로 재현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1) The Pythagorean table of opposites: Reason vs. Nature

“From the beginnings of philosophical thought, femaleness was symbolically associated with what Reason supposedly left behind - the dark powers of the earth goddesses, immersion in unknown forces associated with mysterious female powers. The early Greeks saw women’s capacity to conceive as connecting them with the fertility of Nature. ... Maleness remained associated with a clear, determinate mode of thought, femaleness with the vague and indeterminate. ...

[대략 BC 6세기경에] The Pythagoreans saw the world as a mixture of principles associated with determinate form, seen as good, and others associated with formlessness - the unlimited, irregular or disorderly - which were seen as bad or inferior. **There were ten such contrasts in the table: limit/unlimited, odd/even, one/many, right/left, male/female, rest/motion, straight/curved, light/dark, good/bad, square/oblong.** Thus ‘male’ and ‘female’, like the other contrasted terms, did not here function as straightforwardly descriptive classifications. ‘Male’, like the other terms on its side of the table, was construed as superior to its opposite; and the basis for this superiority was its association with the primary Pythagorean contrast between form and formlessness.”²⁾

2) “불완전한 남성”으로서의 여성

플라톤의 『티마이오스(*Timaeus*)』 이래로 이성인 오직 신들과 몇몇 남성의 특징인 반면에, 여성은 이성이 부재하는 존재라고 보는 역견이 서양문명에서 발전되어져 왔다. 다시 말해, 형태 없고 물질 덩어리인 여성적 ‘자연’에 합리적이고 신적인 질서를 상징하는 남성적 ‘이성’이 자신의 씨를 뿌릴 때에만 세계가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창조된다고 본 것이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나름의 역척스러운 견해와 최소한의 사유력을 가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합리성과 이성은 오직 몇몇 남성과 신들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매우 왜곡된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여성을 이성이 부재한 존재, 이성이 모자라는 존재, 곧 “불완전한 남성”(incomplete man)이라고 보게 만든다.³⁾

이러한 왜곡된 여성관은 기독교 신학에도 침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의 원죄설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일종의 생물학적 유전설이라고 해석되어질 여지를 가지는 것도 분명하다. 다시 말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활동(sex)과 죄(sin)의 유전적 전파를 밀접하게 관련시켰으며 거의 동일시하는 진술을 남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인간론은 당시 발전되지 못했던 인간의 몸체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고대의 의학적 지식과 권위에 기초해서 그려진 다빈치의 남성 해부도가 그러한 오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Genevieve Lloyd, *The Man of Reason: “Male” & “Female” in Western Philosoph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2-3.

3) Lloyd, *The Man of Reason*,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부분 참조.



3. 기독교의 반동성애적 태도의 세 가지 이유

보스웰(John Boswell)은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지게 된 세 가지 이유로 “(1) 성서적 전통의 중요성,” “(2) 초대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던 사회적 혹은 지적 요소들,” 그리고 “(3) 초대 교부들의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반대들”을 꼽는다.⁴⁾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해보도록 하자.

(1) 성서적 전통

동성애 문제가 성서의 주도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몇몇 중요한 성서 본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창세기의 소돔 이야기, 레위기의 규정, 바울의 견해 등을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1-1)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

기독교 성서 해석의 전통에서 고대 도시 소돔이 심판을 받게 된 신학적 이유를 롯을 찾아온 두 명의 천사들에 대한 도시민들의 강제적인 동성애 행위의 시도라고 보아져왔다. “소돔 사람들이 어린 아이[sic]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물려와 그 집을 둘러싸고 롯을 부르며 ‘오늘 저녁 네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 (창19:4-5; 현대인의 성경).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소돔 심판 이야기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 아니며, 현대 학자들은 이보다 또 다른 해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91.

(1-2) 레위기 본문

보스웰에 따르면 동성애가 그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 언급되어지는 유일한 구약성서의 본문은 레위기에서 발견된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18:22; 개역).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20:13).⁵⁾

하지만 구약성서의 다른 부분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절대계명의 형식으로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찌니라”고 명령한다(출20:13). 우리는 성서의 다양한 목소리들로 이루어진 합창을 각기 상황 안에서 항상 분별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스웰과 같은 학자는 예수의 도래 이후에 이러한 유대교의 금지규정들은 새롭게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유대교의 금지규정을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는가! 동성애에 대한 유대교적 견해도 어쩌면 다시 논의되고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In fact non-Jewish converts to Christianity found most of the provisions of Jewish law extremely burdensome, if not intolerable, and a fierce dispute racked the early church over whether Christians should be bound by it or not. The issue was finally resolved at the Council of Jerusalem (ca. A.D. 49; see Acts 15). After long and bitter debate within the highest ranks of the Christian community, it was decided that **pagan converts to the Christian faith would not be bound by any requirements of the Mosaic law** -including circumcision - with four exceptions: they were to “abstain from pollutions of idols, from blood, from things strangled, and from fornication.” [Acts 15:29,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나 목 졸라 죽인 짐승도 먹지 마시오.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런 몇 가지만 삼가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공동번역)] An apostolic letter was sent to Gentile Christians informing them of this decision and specifically censuring efforts of Jewish Christians to impose Jewish law on them beyond these matters.”⁶⁾

(1-3) 바울의 동성애 진술들

(1-3-1)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malakos]하는 자나 남색[arsenokoita]하는 자나...”

보스웰의 해석에 따르면 첫 번째 단어 “탐색”(貪色)은 매우 일반적인 그리스 단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부드러운”(soft)을 뜻하며, 의미상으로는 “과도한”(unrestrained) 혹은 “방종한”(wanton)을 함의한다. 곧 그리스 사용법에 있어서 이러한 “탐색”은 결코 게이들이나 동성애 행위와 아무 연관이 없었으며, 오히려 교부들과 신학자들은 대체로 “수음”(masturbation)과 관련시켰다는 것이다.⁷⁾

5)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0.

6)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3.

두 번째 단어 “남색”(男色)은 보다 동성애 행위와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스웰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동성애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남자 창기’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본다.

“The second word, “*arsenokoitai*,” is quite rare, and its application to **homosexuality** in particular is more understandable. The best evidence, however, suggests very strongly that it did not connote homosexuality to Paul or his contemporaries but meant “**male prostitute**” until well into the fourth century, after which it became confused with a variety of words for disapproved sexual activity and was often equated with homosexuality.”⁸⁾

(1-3-2) 로마서 1장 26-27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보스웰은 고린도전서 6:9의 “탐색”이나 “남색”이 잘못 해석되어졌다고 본 반면, 로마서의 1:26-27의 내용은 동성애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다. 남성과 여성의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의 “역리(逆理)로(*against nature*)” 이루어진 관계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몇몇 해석자들은 이러한 본문의 역리의 관계에 대한 비판을 단지 동성애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던 상황 곧 “우상숭배”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로마인 남성들 사이의 이러한 동성애 행위는 성적인 “황홀경을 추구했던 이방 종교의 제의”(orgiastic pagan rites)와 관련된 것이고, 이를 바울이 비판했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보스웰은 이러한 옹호가 부적절하다고 본다. 첫째, 이른바 성전 창기제도에서 남자 창기들이 여자 창기들보다 더 성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바울이 이러한 성전의 남자 창기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둘째, 보스웰의 해석에 따르면, 바울은 단지 동성애뿐 아니라 성행위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바울이 여기서 단지 종교적 제의의 상황에서의 성행위에 제한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의 바울의 진술을 보스웰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스웰에 따르면,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안에 내재하는 “자연스러운” 관심을 거스르는 모든 부자연스러운 욕망을 비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연스러운 관심으로서 유일신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핵심을

7)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6-7.

8)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7.

9)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7-8.

이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로마인들이 그렇지 못함을 바울이 비판하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관심의 예로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에게 끌림을 예로 들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바울의 관심의 핵심은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신론에 대한 강조와 여기에 대한 변명 없음이라는 신학적 죄라는 것이다. 또한 바울이 동성애자들을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이성애자들이 부자연스럽게 동성애적 행위까지 한다는 것을 조롱하고 있다고 보스웰은 본다. 따라서 보스웰은 바울의 편지도 또한 직접적으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oint of the passage is not to stigmatize sexual behavior of any sort but to condemn the Gentiles for their general infidelity. **There was a time, Paul implies, when monotheism was offered to or known by the Romans, but they rejected it (vv. 19-23). The reference to homosexuality is simply a mundane analogy to this theological [109] sin** it is patently not the crux of this argument. Once the point has been made, the subject of homosexuality is quickly dropped and the major argument resumed (vv. 28ff.).

What is even more important, the persons Paul condemns are manifestly not homosexual: what he derogates are homosexual acts committed by apparently heterosexual persons. ... **It would completely undermine the thrust of the argument if the persons in question were not “naturally” included to the opposite sex in the same way they were “naturally” inclined to monotheism.** ... Paul did not discuss gay persons but only homosexual acts committed by heterosexual persons.”¹⁰⁾

또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신의 문제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종종 구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4) 성서의 동성애 진술에 대한 보스웰의 결론

보스웰은 성서에서 동성애에 반대된다고 보는 많은 진술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일하게 동성애에 대한 직접적 반대가 레위기에서 발견되어진다고 인정하지만, 그것도 또한 일종의 유대인의 도덕적인 모세법의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신약성서에서의 예수는 대체로 성의 문제에 대한 집중적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고 또한 그는 주장한다.

“In sum, there is only one place in the writings which eventually became the Christian Bible where homosexual relations per se are clearly prohibited - Leviticus - and the context in which this prohibition occurred rendered it inapplicable to the Christian community, at least as moral law. It is almost never cited as grounds for objection to homosexual acts. ...

Any arguments which could be made in support of this position however,

10)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07-109.

would be anachronistic; on the basis of the text of the Bible alone no such conclusion is warranted. Sexuality appears to have been largely a matter of indifference to Jesus. His comments on sexual mores are extremely few ... He pronounced no condemnations of sexuality among the unmarried and said nothing which bore any relation to homosexuality. The only sexual issue of importance to ... The New Testament takes no demonstrable position on homosexuality.”¹¹⁾

(2) 초대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던 사회적 혹은 지적 요소들

(2-1) 사회적 변화들: 농촌화와 신정체제

보스웰에 따르면, 서구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비관용적으로 된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 사회적 변화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곧 점진적 농촌화와 신정체제가 그것이다.

첫째 비관용의 이유는 농촌화이다. 기독교가 로마제국에서 힘을 가지게 된 때는 동시에 로마제국의 점진적 농촌화 시기와 관련되어진다. 로마제국의 정치적, 교회적 상위 지배계층들은 주로 농촌의 대지주들로 구성되어져 갔다는 것이다. 이전의 도시 중심의 로마문명은 주로 결혼생활에 대한 충실성, 청소년들의 보호, 핵가족 제도 등에 기초하여 성행위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점진적 농촌화는 성적 즐거움을 인생의 긍정적 가치로 보지 않게 만들었고 성적인 소수자들에 대한 일반적 관용의 태도를 훨씬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 신정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로마제국의 정치적 체계는 4세기에 와서 절대화되어졌다.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자신의 직업, 거주지, 심지어 운동경기 팀조차 제국의 간섭 없이 선택할 수 없게 되었으며, 공적인 종교와 도덕은 말할 것 없이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후기의 정부의 개입은 신정체제의 점진적 독주와 맞물린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개인적 문제로 여겨졌던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인 성적 표현들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보스웰은 본다.

이러한 상황, 곧 4세기에 이르러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공식적 종교가 된 상황을 고려할 때, 기독교가 이러한 로마제국 내의 반동성애와 반게이 감정의 원인이 되는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보스웰은 분명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적 혹은 철학적 입장들도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도록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Aside from the Bible, three specific moral traditions had major impacts on early Christian sexual attitudes: the Judaeo-Platonist schools of Alexandria, ... dualist aversion to the body and its pleasures, and Stoic concepts of “natural” sexuality.”¹²⁾

(2-2) 이원론

인간의 영혼을 두고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우주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철학적 이원론은 초

11)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13-115, 117.

12)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28.

대 교회와 로마제국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가졌다. 예를 들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거의 10여 년 동안 마니교 신자였으며, 그와 유사하게 많은 기독교 도덕론자들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철학적 이원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원론자들에게 있어 인간의 성욕을 평가절하하고 공격하는 것은 거의 선한 힘의 악한 힘에 대한 전쟁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이런 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은 후기 로마제국의 철학적 이원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동일한 이원론과 몸에 대한 혐오가 오히려 이성애 보다는 동성애를 보다 더 옹호하게 하는 태도를 가지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보스웰은 주장한다.

“Dualists depreciated all forms of sexuality as weapons of the evil forces against the good ... Homosexual pleasures were seen by some as worse than heterosexual ones, since they did not even accord with the design of the Creator in regenerating the human race. But they were seen by many as less serious than heterosexual acts since (a) they did not partake of the false aura of sanctity which marital sexuality used to seduce the unwary into lives of self-indulgence, and (b) they did not entrap souls in matter, as heterosexual intercourse did when children resulted. Dualist influence was thus ambivalent on the subject of homosexuality and could have pushed Christians affected by it in either direction.”¹³⁾

(2-3) 자녀생산을 위한 자연스러운 성관계 사상

종종 사람들은 스토아학파의 엄격한 금욕주의와 자연스러운 남녀의 성관계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목적은 자녀생산을 위한 것이라는 사상이 기독교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그러나 보스웰은 이러한 자녀생산이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목적이라는 사상은 스토아학파의 독창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토아학파에 반대하는 글을 썼던 플루타르크(Plutarch)의 예를 든다. 플루타르크에 따르면,

플루타르크(Plutarch): “... anyone who takes a woman not for the sake of children but for pleasure is clearly disregarding the good of marriage and ... has made his children's birth a reproach to them.”¹⁴⁾

요컨대 성행위는 자녀생산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굳이 어떤 철학적 논증이 필요하지 않는 그 시대의 상식으로 생각되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성행위가 강조되는 시대에 동성애 행위는 결코 지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알렉산드리아 규칙”(Alexandrian rule)이라고 불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가 동성애를 반대하며 최초로 성적 행위는

13)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29.

14)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29-130 note 25.

오직 자녀생산을 목적으로 할 때 도덕적이라고 가르친 가장 초기의 신학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다.¹⁵⁾

(3)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반대들

보스웰에 따르면,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성애를 크게 4가지 이유에서 비판하여왔다. 이것들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Although the attitudes of Christian ascetics probably affected only a small portion of the early church, they were eventually to provide the official justification for the oppression of gay people in many Christian states, and they deserve to be considered here. They can be subsumed under four headings: (1) animal behavior, (2) unsavory associations, (3) concepts of “nature”, and (4) gender expectations.”¹⁶⁾

(3-1) “동물적 행동”

초대 기독교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며 제시한 가장 초기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근거들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가 동물적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 1세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나바서(*The Epistles of Barnabas*)』에 기초하고 있다. 바나바서는 비록 지금은 외경으로 간주되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성서의 일부분으로 여겨졌으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내용에 매우 익숙하였다. 바나바서의 저자는 어떤 특정한 동물을 먹지 못하도록 한 음식규정과 어떤 특정한 성적 행위를 금지한 성행위규정을 동일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토끼는 소년 성애자가 될 위험 때문에 먹는 것이 금지되어졌고, 하이에나는 간통하는 자가 될 위험 때문에 먹는 것이 금지되었고, 족제비는 구음의 위험 때문에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Moses said,] You shall not eat **the hare** [cf. Lev. 11:5]. Why? So that, he said, you may not become **a boy-molester** or be made like these. For the hare grows a new anal opening each year, so that however many years he has lived, he has that many anuses.

Nor should you eat **the hyena**, he said, so that you may not become **an adulterer or a seducer**, or like them. Why? Because this animal changes its gender annually and is one year a male and the next a female.

And he also rightly despised **the weasel** [cf. Lev. 11:29]. You shall not, he said, become as these, who we hear commit **uncleanness with their mouths**, nor shall you be joined to those women who have committed illicit acts orally with the unclean. For

15)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40.

16)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37.

this animal conceives through its mouth.”¹⁷⁾

물론 바나바서의 이러한 내용은 동물학적으로 오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저자는 레위기의 텍스트들을 왜곡하고 있다. 모세는 동물들에게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더군다나 모세는 하이에나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해석을 알아차릴 정도로 레위기 텍스트를 엄밀히 읽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되었듯,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이른바 “알렉산드리아의 규칙”을 언급한 초기 몇몇 신학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자녀생산을 위한 성행위라는 알렉산드리아의 규칙에 기초하여 자신의 저서 *Paedagogus*에서 동성애를 비판하였는데, 그러한 비판은 위의 바나바서 내용에 기초한 것이었다. 클레멘스에 따르면, 모세는 하이에나 혹은 토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른바 “생산하지 못하는 씨뿌림”(fruitless sowings)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동물들은 성적 행위에 매우 집착하였다”고 본다. 클레멘스는 이처럼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바나바서뿐 아니라 바울의 진술들과 플라톤의 진술들을 문맥과 관련 없이 인용하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태도는 초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매우 영향력을 가졌다.

(3-2)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

몇몇 기독교 신학자들은 동성애 행위가 최소한 세 가지의 불미스러운 것들과 관계되어진다고 생각했다. 아동의 성적 학대, 근친상간의 가능성, 이교도적 함의가 그것이다. 첫째, 4세기경에 와서는 동성애가 매우 자주 아동의 성적 학대와 관련되어졌다.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은 종종 노예시장에 팔려졌으며, 이러한 아이들 중 많은 부분은 사춘기가 되었을 때쯤에는 특히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어졌다.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면 나중에는 노동력을 위해 팔려지기도 하였다. 클레멘스는 자신의 저서에서(*Paedagogus* 3.3) 남자 아이들이 잠재적 고객들에게 노예로 팔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쁘게 치장되어졌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둘째로, 아동의 비자발적인 매춘과 성적 학대와와는 별도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러한 동성애와 노예무역이 의도하지 않게 우연한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염려하였다. 예를 들어 저스틴은 자신의 아들, 형제, 혹은 친족과 의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Justin, *I Apology* 27). 클레멘스는 그러한 매춘 행위로 인해 근친의 비극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슬퍼한다: “얼마나 많은 아비들이 자신이 내버린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매춘부가 된 자신의 아들이나 딸과 의도하지 않게 성적 관계를 가졌는가?”¹⁸⁾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종종 이교도적인 성적 행위와 관련되어졌으며, 특히 이교도들의 성적 문란행위의 표시라고 이해되어졌다. 유대인의 성서(구약)나 기독교인의 성서(신약)에 구음이나 향문성교가 구체적으로 비난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고대세계에서 전자는 경멸의 대상으로 널리 여겨졌다. 또한 두 행위 모두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관련되어졌다.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나중에 이러한 혐오증과 배타주의는 게이들에 대해서 뿐 아니라 유태인들, 이단자들, 미개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지게 된다.

17)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37-138.

18)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44.

(3) “자연”(nature)의 개념

신약성서에는 이른바 “자연” 혹은 “자연스러운”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상적인 자연상태”에 대한 플라톤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이상적 평가를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대의 상식에서, 특히 스토아학파의 견해에서, 음식을 영양을 위한 만큼만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과식은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스토아학파의 “자연스러운” 도덕이라는 관념은 기독교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기독교의 발생 이후, 세네카로 대변되는 스토아학파와 바울의 추종자들은 이른바 “자연스러움”의 도덕에서 서로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 결과로, 3세기에 와서 클레멘스에 의해 이른바 “알렉산드리아의 규칙”이라는 것이 정립되어진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면, “

Clement of Alexandria: “to have sex for any purpose other than to produce children is to violate nature (*Paedagogus* 2.10).”¹⁹⁾

이러한 알렉산드리아의 규칙은 후대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죄가 없기 위해서는, 그것은 자연(nature), 관습 혹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²⁰⁾ 아우구스티누스는 단지 동성애 행위뿐 아니라 자녀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가 선천적으로 죄악된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는 부자연스러운(곧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성적 행위에 대해 매우 경악하였기에 결혼관계에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 아내들에게 만약 남편들이 그러한 욕망을 가진다면 창기들과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이유에서 성매매를 삶의 “자연스러운” 곧 필수적인 부분이라고까지 보았다: “인간세상에서 창기들을 없앤다면, 너는 모든 것을 욕망으로 파괴하고 말 것이다(*De ordine* 11.4.12).”²¹⁾

물론 이러한 죄가 없는 것과 자연스러움 사이의 상응관계는 신약성서에 직접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플라톤주의자였던 유대인 신학자 필로(Philo)에 따르면, 합법적인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인간의 성행위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며, 모든 도덕적 문제들은 이러한 남자의 자녀 생산의 의무에 종속되어지며, 남자의 독신생활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러운(unnatural)” 것이며,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은 마치 수음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다.²²⁾ 이러한 필로의 자연스러운 성행위의 도덕은 신약성서가 말하고 있는 독신생활의 유익이나 이혼에 대한 금지와 모순된다. 또한 바울조차도 부부생활에 있어서 자녀의 생산이라는 목적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도, 부부간의 결혼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고린도전서 7:4-6).

(3-1)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19)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47.

20)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47.

21)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49 note 50에 재인용.

22)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48.

자연스러운 성행위와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결정적으로 연결시킨 이는 바로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그는 기독교인의 자연스러운 성행위의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 말한다. 곧 성행위가 자연스럽기 위해서는 바른 “목적”과 바른 “대상”과 바른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성행위의 목적은 생명의 잉태와 자녀의 생산이다. 단지 즐거움을 위한 성행위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성행위의 대상은 합법적인 배우자에 제한된다. 바른 성행위의 방식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목적, 대상,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성행위는 “부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3-1-1) 자연스러운 목적

“Unnatural sin [sin against nature] is an act from which generation cannot follow.”
(*Summa Theologiae*, 2a2ae. Q. 154, art. 11)

“Now, this is not what is sought in the case of semen, but, rather, to emit it for the purpose of generation, to which purpose the sexual act is directed…
Therefore, **the emission of semen** ought to be so ordered that it will result in both the **production of the proper offspring** and in the upbringing of this off”
(*Summa Contra Gentiles*, Book 3, part 2, chapter 122, article 4)

No masturbation: “the inordinate emission of semen is incompatible with the natural good; namely, the preservation of the species. Hence, after the sin of homicide … , this type of sin appears to take next place…”(*Summa Contra Gentiles*, Book 3, part 2, chapter 122, article 9)

Only natural style of intercourse: It is a sin “if the natural style of intercourse is not observed, as regards the proper organ or according to other rather beastly and monstrous techniques.” (*ST*, 2a2ae, q. 154, art. 11)

(3-1-1 반론) ‘자연스러운 목적’에 대한 신학적 도전

과연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성행위의 자연스러운 목적을 단지 자녀의 생산에 신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남자와 여자는 성행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도 비록 잉태하지 못하는 여성이 성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But, if by accident generation cannot result from the emission of semen, then this is not a reason for it being against nature, or a sin: as for instance, if the woman happens to be sterile.”(*Summa Contra Gentiles*, Book 3, part 2, chapter 122, article 5)

나아가 우리는 성서에서 성행위의 목적이 항상 자녀생산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2:18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즉 사람이 배필을 가지는 것은 단지 자녀들을 생산할 목적뿐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함과 동반자의 삶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다.

(3-1-2) 자연스러운 파트너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행위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는 결혼의 배우자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혼관계 안에서 태어난 자녀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in the human species offspring require not only nourishment for the body, as in the case of other animals, but also education for the soul. ... Now, **a woman alone is not adequate to this task**; rather, this demands the work of **a husband, in whom reason is more developed** for giving instruction and strength is more available for giving punishment. ... Therefore, matrimony is natural for man, and promiscuous performance of the sexual act, outside matrimony, is contrary to man's good. For this reason, it must be a sin.” (*Summa Contra Gentiles*, Book 3, part 2, chapter 122, article 8)

결과적으로, 결혼관계 바깥의 성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Also, that fornication and every performance of the act of reproduction with a person other than one's wife are illicit is evident.” (*Summa Contra Gentiles*, Book 3, part 2, chapter 122, article 11)

(3-1-2 반론) ‘자연스러운 파트너’에 대한 신학적 도전

과연 우리는 자녀의 제대로 된 교육이 양부모를 모두 가진 가정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한 부모의 자녀는 원천적으로 그러한 교육의 가능성에서 배제되는 것일까? 우리는 양부모를 가진 자녀가 한 부모를 가진 자녀보다 항상 원칙적으로 더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둘째로, 과연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제하는 것처럼, 남자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 따라서 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존재인가? 무수히 많은 비이성적인 남성들의 존재는 이러한 전제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홀로 된 부모는 이제 성행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이른바 무성적인(sexless) 존재이어야만 하는가?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가 아닐까? 인간의 존엄성에는 성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3-1-3) 자연스러운 방식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성행위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에 제한되어진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방식의 성행위는 따라서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Every emission of semen, in such a way that generation cannot follow, is contrary to the good for man. ... Now, I am speaking of **a way from which, in itself, generation could not result**: such would be any emission of semen apart from the natural union of male and female. For which reason, sins of this type are called *contrary to nature*.” (*Summa Contra Gentiles*, Book 3, part 2, chapter 122, article 5)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방식에는 동물과의 교합뿐 아니라 동성애적 관계도 포함되어진다.

“That the emission of semen under considerations in which offspring cannot follow is illicit is quite clear: There is the text of Leviticus (18:22-23): “thou shalt not lie with **mankind** as with womankind ... and thou shalt not copulate with any beast.” (*Summa Contra Gentiles*, Book 3, part 2, chapter 122, article 10)”

(3-1-3 반론) ‘자연스러운 방식’에 대한 신학적 도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란 결국 첫 번째 원칙인 ‘자연스러운 목적’으로서의 자녀 생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이 비판되면, 세 번째 원칙도 비판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는 별도로, 동성애 행위가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라는 전제에는 성서의 이른바 소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보스웰의 견해를 다시 보도록 하자. 창세기 19장의 소돔 이야기에 대해 보스웰은 최소한 4가지 가능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n the basis of the text alone, there would seem to be four inferences one could make about the destruction of Sodom: (1) the Sodomites were destroyed for the general wickedness which had prompted the Lord to send angels to the city to investigate in the first place; (2) the city was destroyed because the people of Sodom had tried to rape the angels; (3) the city was destroyed because the men of Sodom had tried to engage in homosexual intercourse with the angels (note that this is not the same as (2): rape and homosexual intercourse are separably punishable offenses in Jewish law); (4) the city was destroyed for inhospitable treatment of visitors sent from the Lord.”²³⁾

보스웰에 따르면, 1955년 이래로 학자들은 (4)번의 해석을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소돔 이야기에서 성적인 함의는 주변적인 것이고, 보다 근원적인 관심은 나그네에 대한 도덕적 환대의 문제라는 것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떠돌이 출신의 롯이 소돔 도시의 장로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밤에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 안에서 알려지지 않은 손님들을 대접함으로써 소돔의 토착적인 풍습을 거슬렀다는 것이다. 보스웰에 따르면,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손님들을 “상관”(相關; know)하리라”(창19:5; 개역)고 요구한 것은 손님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요구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손님들과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스웰은

23)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93.

본다. 보스웰은 또한 예수께서도 소돔 이야기를 이러한 4번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²⁴⁾

마태 10:14-1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4) 성별에 따른 적합한 역할

마지막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반대의 이유는 이른바 각각의 성별에는 거기에 적합한 역할이 있다는 기대이다. 남자는 보다 능동적이어야 하는 것이 본성인데, 동성애에서는 남자가 수동적 위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자가 그에게 걸맞는 역할을 하지 않고 여자의 역할로 전락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반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자 크리스소스톰(John Chrysostom)에 따르면,

“For I maintain that not only are you made [by homosexual acts] into a woman, but you also cease to be a man; yet neither are you changed into that nature, nor do you retain the one you had.”²⁵⁾

이런 이유에서, 크리스소스톰은 연극무대 위에서조차 남성은 여성의 역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이 여자처럼 되기보다는 차라리 천 번을 죽는 것이 낫다고 그는 여겼다. 하지만 오늘날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 구분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구분에 전제되어지고 있는 여성의 열등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혐오감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크리스소스톰과 많은 다른 기독교 신학자들의 동성애 반대의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엄밀하게 말해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던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24)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93-94.

25)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157.